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River & Culture



강문규 | 한라일보 논설실장
(mkyu@hanmail.net)

산지천의 역사와 문화

1. 들어가며

산지천은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하천이다. 한라산 북사면 해발 약 720m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아라1동과 아라2동, 아라2동과 이도2동, 이도1동과 일도2동 그리고 일도1동과 건입동의 경계선을 차례로 흘러 하구인 건입동의 제주항(산지항)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간다. 산지천의 유로연장은 13.2km, 유역면적은 12.2km²이며 한천, 병문천과 더불어 제주도의 3대 하천으로 일컬어져 왔다.

산지천은 탐라가 개벽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하천이다. 즉 산지천은 당초 제주목(濟州牧)의 축성과정에서는 성 밖에 두었으나 왜구가 제주성을 침략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면서 식수조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성을 동쪽으로 물러쌓으면서 산지천은 제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산지천은 제주성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 또는 생활용수의 공급처였다.

모든 문명이 강변에서 일어났듯이 제주의 역사·문화도 산지천변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

다. 제주시와 지방언론인 한라일보는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제주시내 88개소에 표석을 세웠다. 그 중 절반을 넘는 표석이 산지천 반경 100~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 2007년에는 건입동이 '건입동박물관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0여개소에 표석을 세울 정도로 산지천 주변은 세월을 달리하는 선인들의 자취가 켜켜이 쌓여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산지천은 탐라가 개벽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2. 삼성혈을 정점으로 유적 산재

산지천변의 각종 역사유적은 삼성혈을 정점으로 동쪽, 서쪽 그리고 산지천 하상에 분포해 있었다. 삼성혈에서 산지천을 따라 내려오면 동쪽에는 삼성전(三姓殿), 제주향교, 운주당(運籌堂), 해산대(海山臺), 산천서당(三泉書堂), 희우대(喜雨臺), 공신정(拱辰亭), 만경대(萬景臺), 영은정(泳恩亭), 취한당(翠寒堂)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광양당(廣壤堂), 제이각(制夷閣), 굴림서원(橋林書院)과 오현단(五賢壇), 중인문(重仁門) 등이 세워져 있었다. 산지천 하상에는 남수각(南水閣)



(그림 1) 쌍안교의 남수구가 있었던 자리에는 오휘교가 세워지고 하천에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숲이 울창한 높은 언덕이 제이각이 있던 자리다.

과 가락천(嘉樂川), 판서정(判書井), 감액천(甘露泉), 급고천(汲古泉), 산저천(山底川), 천룡석(天龍石), 세심단(洗心槽), 광제교(光霽橋), 지주암(砥柱巖), 북수구(北水口), 산지포구 관련 유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유적에는 저마다 슬한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사적 제134호(지정; 1964. 6. 10)로 지정된 삼성혈(三姓穴)은 제주도 고·양·부 삼성의 시조인 고을나, 양을라, 부을라 세 신인(神人)이 솟아났다는 곳이다. 혈에는 품(品)자 모양의 세 구멍이 배열돼 있다. 조선 중종 21년(1526) 이수동 제주목사가 돌담으로 울타리를 쌓고 삼성혈 북쪽에 홍문(紅門)과 비석을 세워 단장했다.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봄·가을에 제사를 모시고, 매년 11월 상정일(上丁日)에 도민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산지천 동쪽의 유적을 상류에서 하류를 따라 더듬어 보면 먼저 삼성전(三姓殿)을 들 수 있다. 19세기 초 남원(南原) 제주양쪽 쪽보에 실린 그림을 보면 건입동 동쪽 언덕에 기와집 3채가 우람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를 삼성전으로 표기하고

있다. 위치는 대략 지금의 동문성당 주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에 관한 고문헌의 기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은 지금의 삼성혈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지금 동문공설시장의 남쪽 높은 언덕에는 운주당(運籌堂)이 있었다. 1566년 관곽 목사가 동성(東城)을 확장한 뒤 세운 것으로 이산해(李山海)가 현액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주(州)의 장대(將臺)로 유사시 제주목사가 제주성 방어를 총지휘했던 곳이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重修) 보존돼 왔으나 1892년(고종 29)의 실화로 소실되자 찰리사 이규원이 개건하였다. 운주당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수선(高守善) 여사가 운영하던 보육원으로 사용돼 왔는데 지금도 축대 일부가 남아 있다.

산지천의 하류는 예부터 빼어난 경승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동쪽에는 높은 금산(禁山)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여러 곳에서 샘이湧출했다. 또 금산에 오르면 성안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지금 감리교회(제

주시 일도2동 1184)가 자리 잡고 있는 터는 원래 공신정(拱辰亭)이 있었던 곳이다. 처음은 이원진 목사가 1652년(효종 3) 북수구(北水口) 홍문(虹門) 위에 공신루(拱辰樓)를 건립하였으나 홍수로 유실되자 1832년 목사 이예연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重修) 보존돼 왔으나 1928년 일제가 이곳에 제주신사(濟州神社)를 건립하면서 헐어버렸다.

공신정 밑에는 조선시대 사학의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삼천서당(三泉書堂·일도1동 1198)이 있었다. 1736년(영조 12) 김정 목사가 공신정 입구에 서당을 창설하고 제주의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김 목사는 섬의 풍속을 다스리고 문교를 숭상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 쌀 50섬과 무명 2동을 출연하여 존현당을 세워 유생들을 뽑아 가르치게 했다. 이원조 목사는 삼천서당의 이름과 관련 중수기에서 “재(齋)는 가락천 위에 있는데 좌우의 원천(源泉)으로 해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이라고 했다.

삼천서당은 원래 인조 때인 1627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 판관을 지낸 이각이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그 위에 연당(蓮堂)을 세웠던 터를 활용해 서당을 지은 것이다. 노봉 김정 목사는 역사문화는 물론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연생태의 보존과 활용에도 관심이 두드러졌던 관리였다. 그는 금산언덕을

호반병·중장병·용린병으로 나눠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삼천서당을 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게 했는가 하면 샘터마다 깨끗하게 정비한 뒤 그 의미를 부여한 명(銘)을 남겼다. 삼천서당 경내에 있는 산저천, 금교천, 감액천 주변에는 유생들이 붓글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천룡석이라는 넓은 바위를 갖추어 놓는가 하면 세심단(洗心壇)을 세워 항상 맑고 곧은 마음을 갖도록 했다.

삼천서당 북쪽 금산 기슭에는 금산물, 광대물, 지장샘이 솟아올랐다. 여기에서 솟는 샘물은 약샘이라 할 정도로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금산 주변에는 1905년 홍종우 목사에 의해 영은정(泳恩亭)이 세워졌다. 홍종우는 한말 대신 김옥균을 상해에서 암살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제주목사로 오게 된 것은 1901년의 이재수난으로 프랑스와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홍목사가 프랑스에서 유학한 경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은정 남동쪽에는 공덕동산이 있다. 당시 산지(건입포) 사람들은 동쪽에 가로막힌 높은 절벽을 넘어 발농사를 지으러 다녔는데 길이 험준해 늘 위험이 따랐다. 이에 지역유지인 고서흥(高瑞興)이 조 삼백석을 내놓아 석수와 일꾼들을 거느려 암반을 뚫고 길을 만든 것을 기리기 위해 길가에 공덕



(그림 2) 북수구인 홍문이 있었던 자리에는 최근 산지천이 복원되면서 새로 다리가 놓여졌다. 산지천은 너비가 대폭 줄어든 채 복원됐다.

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비석이 남아 있다.

삼천서당 주변 언덕에는 만경대(萬境臺), 해산대(海山臺)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위치는 고증할 수 없다. 다만, 이들 대(臺)는 높은 지형위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관리나 선비들이 제주읍성을 한 눈에 굽어보며 호연지기를 즐겼던 곳으로 이해된다.

산지천을 따라 산지(건입)포구로 내려가면 김만덕의 객주(客主) 터(제주시 건입동 1300)가 나타난다. 만덕은 젊어서는 명기(名妓)로, 나이 든 뒤에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사회복지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만덕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기의 집에서 자라나 뛰어난 미모의 명기가 되었다. 뒤에 기적(妓籍)을 벗고는 이곳에서 객주집을 차려 일약 부자가 되었는데 1792년부터 4년간 흥년이 들어 도민들이 굶주리자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육지에서 양곡을 사들여 도민들을 구제했다. 만덕이 전 재산을 털어 도민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정조임금은 이를 가상히 여겨 만덕을 조정으로 불러 후한 상을 내리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듣고 유람을 시켜주기도 했다. 당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만덕전’을 지어 그녀의 미덕을 칭송하기도 했다.

3. 산지천 서안(西岸)의 유적

그러면 산지천 서쪽 언덕에는 어떤 역사·문화유적이 깃들여 있는가? 삼성혈에서 산지천을 따라 북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제주시새마을회관 곁에 ‘광당양 터’라는 표석이 나타난다. 즉,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당(廣壤堂) 제사 터인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시대 송나라 호종단(胡宗旦)이 제주의 지맥을 누르고 떠날 때 노한 한라산신이 매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켜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켜버렸다. 조정에서는 그 신령함을 칭찬하여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들어와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가 이를 철폐시켰으나 뒤에 다시 부활시켜 제사를 지냈으나 일제강점기에 다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양당을 지나 200m 남짓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면 제주읍

성의 남문성이 나타난다. 당초 제주읍성에는 동문과 서문, 남쪽에 2개의 문을 두었다. 1565년(명종 20)에 관록 목사가 성안에 우물이 없어 백성들이 겪는 식수난과 변란 때의 물난리에 대비하여 동성(東城)을 산지천 밖으로 물려 쌓았다. 이때 동·서쪽에 각 1문, 남쪽에는 2개의 문을 설치했다. 선조 32년(2599)에는 성윤문 목사가 성굽을 5자 더 늘려 쌓고, 남문을 없애는 동시에 문마다 초루(門樓)를 만들고, 남북의 수구(水口)에는 무지개(虹霓)모양의 돌다리를 설치하였다. 또 성 남쪽 모퉁이에는 제이각(制夷閣)을 세웠다.

제이각은 오현단 동쪽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제이각 터에서 주위를 살펴보면 지금은 높은 건물로 가려져 조망이 어렵지만 옛날에는 제주읍성을 비롯한 먼 거리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당터임을 알 수 있다.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의 제이각이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사시에 제주성안으로 접근하는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제이각 절벽 아래에는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남성(南城)을 동·서로 잇는 안경모양의 돌다리가 있었다. 북수구(北水口)가 그것이다. 다리가 무지개 모양이어서 홍예교, 또는 안경을 닮았다고 쌍안교(雙眼橋)라고 불렀다. 이곳을 흔히 남수각(南水閣)이라고 부르는데 남수구 위에 누각을 세웠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지천 위에 설치된 남수구와 바로 언덕 위에 세워진 제이각을 합해 남수각(南水閣)이라 통칭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남수구는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볼 때 매우 아름답고 견고한 다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7년 대홍수로 무너진 뒤 복구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자리에 오현교가 세워졌다.

제이각을 지나 남성 안으로 접어들면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1호(1971. 8. 26. 지정)인 오현단(五賢壇)이 나타난다. 오현단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훼손된 뒤 1892년(고종 29) 제주 유림들의 건의에 따라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굴림서원은 1578년(선조 11) 조인후 판관이 1521년(중종 16) 10월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사사한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닛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적거지에 충암

사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 1655년(현종 6)에 최진남 판관이 충암사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오현단에는 충암 김정을 비롯하여 청음 김상헌,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 규암 송인수 등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조두석이 세워져 있다.

오현단에서 북쪽을 따라 100여m 내려가면 옛 제주은행 본점 부근에 소민문(蘇民門) 표시가 보인다. 소민문은 1780년(정조 4) 당시 김영수 목사에 의해 북쪽의 수복문(受福門)과 함께 세워졌다. 이들 문은 산지천 서쪽에 간성(間城)을 세우며 성안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 축조한 것이다. 간성을 쌓게 된 배경은 수재(水災)와 깊은 관련이 있다. 1515년 곽휼 목사가 동성을 확장하며 산지천은 성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큰 비가 올 때마다 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재해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1652년의 기록을 보면 그해 8월 태풍과 함께 큰 비가 내려 성내의 가옥과 가축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생겨났다. 또 홍수로 제주성 북수문이 무너지기도 했다. 1713년(숙종 39)의 홍수피해는 더욱 컸다. 숙종실록을 보면 “제주대정정의에 대풍우가 몰려 왔다. 해일이 밀려와 산을 덮었으며 무너진 가호가 2천여호에 달했다. 사람들도 많이 압사했는데 폐사한 우마가 400여 마리나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홍수피해가 심해지자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

는 산지천에 간성을 쌓도록 하고 남쪽에 소민문, 북쪽에 수복문을 세웠다. 이들 문은 2층 누각으로 세워져 산지천과 주성(州城)을 면모를 한층 높이는 구실도 하였다. 이들 문은 1914년 헐리었다.

4. 산지천 하상(河上)의 유적

이처럼 산지천변에는 동안과 서안에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산지천 속에도 의미 있는 유적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남쪽에는 흥예교인 북수구(쌍안교)가 있었다. 사진자료에는 이 다리의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 홍수로 남수구가 무너진 뒤의 잔해만 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1923년 4월 제주에 내려 온 뒤 북수구에 관한 기록을 남긴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朗, 1899~?)의 제주여행기는 북수구 유적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그것은 그가 일본 동경대 공학박사로 일본문화재건 모뎀보존기술협회 이사를 지낸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는 남·북수구가 대홍수로 무너지기 5년 전인 1923년 4월 제주에 온 뒤 산지천의 흥예교와 남수각 쌍안교를 둘러보고 조선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림 3) 산지천 북수구 자리에 설치된 다리. 왼쪽 건물을 위로 보이는 교회침탑 자리에 공심정이 있었다.

건축양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전공자답게 곧 줄자로 측량에 나서는데 그 결과 단형아치교(복수구)는 길이 25척, 너비 12.5척이며, 안경교(남수구)는 길이 30척 너비 11.5척, 높이 17척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남수구(남수각) 아래는 가락천이 흘렀다. 연중 어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으며 늘 풍부한 물이 솟아 흘러 제주 성내의 식수원인 산지천의 본류를 이루었다. 가락천은 제주 성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여름에는 주민들의 피서지로 아깍을 받아 왔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렀으나 상류지역의 대규모 건축공사로 수맥이 끊겼다고 전해진다. 가락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충암 김정이 유배생활 중에 판 우물이 있었다. 형조판서를 지낸 김정이 판 우물이라고 해서 '판서정(判書井)'이라고 불렀다.

산지천은 성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를 공급하는 근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근심의 원천이기도 했다. 대풍우가 몰려올 때마다 물이 성안으로 밀려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산지천 하상에 세워진 조천석(朝天石) 지주암도 그런 홍수의 재앙을 막아주도록 하늘에 기원했던 신앙석이었다. 지금도 산지천에는 경천암(擎天岩)으로 불렸던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조천(朝天)이

란 조두석을 세우고 해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를 올렸다. 1736년 목사 김정은 이 바위를 지주암이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지주', '경천', '조천'석은 모두 홍수를 막기 위해 하늘에 기원했던 신앙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방조비(防潮碑)이기도 했으며 물의 높이를 보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수비(驚水碑)의 기능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천서당 아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희우대(喜雨臺)도 하늘에 비를 내려주도록 제를 지내던 곳이다. 가뭄이 들어도 비가 많이 와도 하늘에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큰 차이가 없다.

산지천은 성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했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피서공간으로서, 선비와 관리들에게는 음풍농월(吟風弄月)하며 문화의 목마름을 달래던 쯤쭈기였다. 그럼으로써 변방인 제주섬에 격조 높은 역사·문화의 향기를 피워 올렸던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산지(건입)포구 바로 위쪽에 있었던 제주성 북수구(北水口)인 홍문(홍문)은 가장 이름난 유적이었다. 북수구 위에는 처음 죽서루(竹西樓)가 세워졌으나 홍수로 유실되고 1652년(효종 3)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보수하면서 공신루(拱辰樓)를 세웠다. 그 뒤에도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무



(그림 4) 산지천 하류의 모습으로 조선시대 김민덕이 해상교역과 관련된 객주를 운영했던 터전이었다.

너져 내렸으므로 목사 이예연(李禮延)이 순조 32년(1832) 누각을 삼천서당(三泉書堂) 동쪽 언덕으로 이간하며 북수구(北水口)에는 문루를 얹어고 홍문(虹門)만 세웠다. 홍문은 홍예교가 있는 문으로 동성(東城)과 성안을 잇는 중요한 가교였다.

한말 대신을 지낸 윤양 김윤식이 남긴 속음칭사(續陰晴史)를 보면 “석성(石城)과 마주치는 데를 굽어보니 수구(水口)에 홍예문(虹霓門)이 지어져, 이 위를 통해 왕래한다. 수문의 바깥은 백경(百頃; 頃은 반걸음이며 백경은 약 30m)의 독으로 둘러싸인 연못에 봄물(春水)은 넘실거리는데, 오리 떼가 열을 짓고 있다. 제방위에는 파란 버드나무가 빙 둘러 있고, 언덕위에는 사람 사는 집이 있어 복숭아꽃이 곳곳마다 활짝 피어 있다. 그림과 같은 경치”라고 했다. 또 “정자(공신정) 밑에는 세 곳에서 물이 솟는데 천품(泉品; 샘물의 품질)이 아주 뛰어나서 이 정자가 이름나게 된 것이다. 시험 삼아 샘물을 길어다가 차를 끓여 마시니 맑은 향이 몸속으로 스며든다. 낮선 아낙 40~50명이 샘물가에서 옷을 빨고 있는데, 빨래방망이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다.”고 기록했다. 마치 도원경(桃源境)을 화폭에 그려놓은 것과 같은 글로 공신정에서 바라보는 산지천과 홍예문, 그 주변의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짐작케 한다. 일제시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도 홍예문과 산지천 주변을 유영하는 오리, 버드나무들이 등장하는 등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데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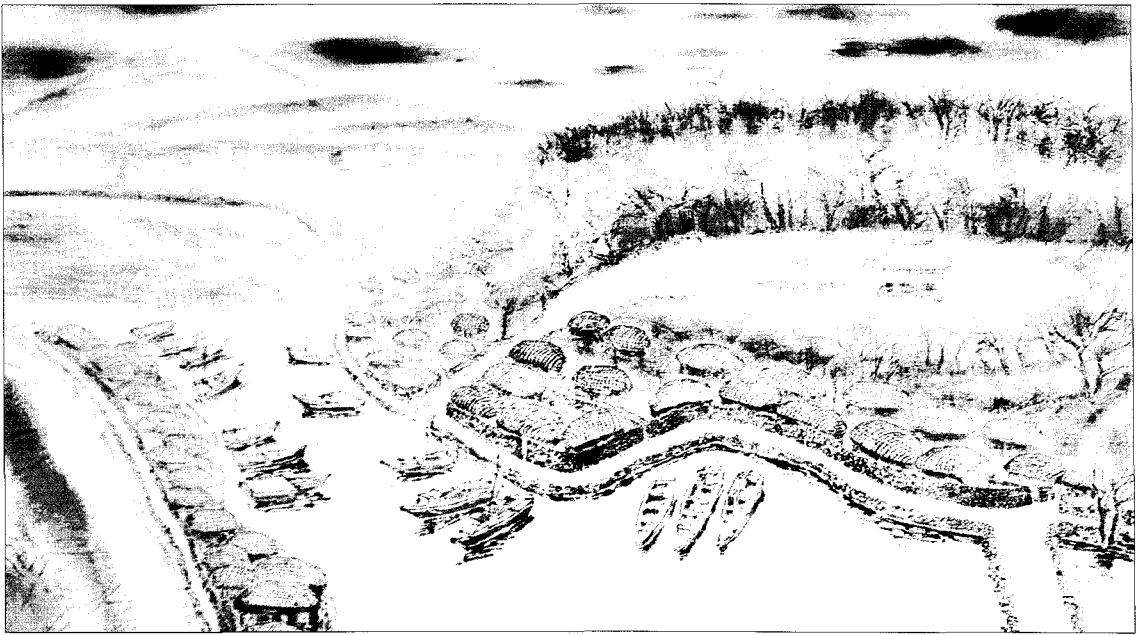
산지천은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魚)의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산지포(견입포)의 풍경에 관한 첫 기록은 조선조 중종 15년(1529) 8월 제주에 유배 온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이다. 그는 이조참판,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 재임 중 조광조 등 18인과 함께 기묘사화에 연루돼 제주에 오게 되었다. 그는 주성(州城) 동문 밖 반리(半里) 떨어진 금강사 옛 절터에서 적거생활을 했다. 산지천변에서 귀양살이를 한 것이다. 그는 유배인으로서 멀리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산지천 등을 배회하며 주변 풍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또 적거지 인근에 오래된 배나무를 다

들어 정자나무로 삼아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도 했다. ‘정자나무가 위치한 곳은 지세가 높고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북으로 창해를 바라봄에(바다는 정자에서 1리쯤 떨어져 있다) 추자 모든 섬이 눈앞에 역력히 보이고, 좁 먼데 서쪽으로 성중(城中)을 바라봄에 마을 연기와 버들, 성남(城南)과원과 내정자가 반리(半里)이니 부르면 응할 만큼 멀지 않다.’고 했다. 성남 과원은 지금의 오현단 남쪽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보아 동초등학교 남쪽에서 동문성당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풍토록에는 또 “성남과원 동쪽에서 솟아나는 샘(가락천; 산지천 상류를 지칭)이 ‘하류로 흘러가 바닷가에 이르러 물을 이루니 물이 맑고, 또 맑은 못이 있어 깊은 곳에 사람이 가지 못함에 배를 띄우는데 은순(은어)이 가장 많이 나고, 곁에 갈대밭이 있어 강호(江湖)는 고요하고 깊숙한 정취가 있다. 물고기는 그물로 혹은 낚시로 낚는데 바다에 작은 고기류가 수종(數種)이 있으니 역시 언덕에 앉아서 낚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5백여 년 전 산지포구의 모습이 그려진다. 갈대밭과 고요하고 깊숙한 정취가 풍기는 강호에서 배를 띄워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던져 은어를 비롯한 여러 종의 고기를 잡는, 산포조어(山浦釣魚)의 원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산지(견입)포구는 탐라시대부터 최근세까지 육지부를 잇는 관문으로서 각종 문물이 유입되고 제주의 산물이 반출되는 대표적인 제주의 대표적인 교역항이었다. 이는 제주도의 수부(首府)인 제주읍성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산지포구는 탐라개벽설화에 등장하는 고을라 15세 손인 고후 등 세 형제가 처음으로 신라에 입조한 뒤 신라로부터 작위를 받고 귀환한 포구로 알려져 있다.

산지포구가 탐라시대부터 대표적 교역항이었음을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산지항 축항공사 때 발견된 산지항유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산지포구 인근 용암동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한대(漢代)의 동거울을 비롯하여 동검자루, 60여점의 화패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화패는 전한(前漢)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무렵의 교역인



〈그림 5〉 1920년대말 일제가 매립하기 전 산지포구의 모습을 자료사진 등을 통해 그림으로 복원한 작품이다. 강부연 작

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포구는 제주와 육지부의 문물이 오가는 거점으로서 교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조선시대 거상으로 이름을 남긴 김만덕의 객주집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제주성안 사람들에게 희로애락을 안겨 주었던 산지포구는 일제강점기에 매립되고 새로운 포구를 갖추게 된다. 이는 1897년(광무 1) 제주에도 기선이 취항하면서 수심이 깊고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양항(良港)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일제는 1920년 조선총독부령 41호로 산지항을 지정항으로 고시한 뒤 1927년에는 상선을 취항시키기 위한 축항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축항공사가 착수될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1928년 대홍수로 남수각의 흥예교와 북서의 흥문이 무너진 것이다. 이 홍수는 산지교를 거쳐 거의 직각으로 유로를 돌려 동쪽으로 200여m 흘러 바다로 이어지던 산지포구의 원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즉 기존의 유로를 직선화하고 산지포구를 매립하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성의 성담은 새로운 산지항과 포구의 매립공사에 석재로 활용

되며 제주읍성도, 산지포구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5. 나가며

예로부터 산지천은 제주읍성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천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여느 하천들과는 달리 사철 맑은 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탐라국시대 이래 제주의 수부(首府)인 제주읍성이 이곳 산지천변에 들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산지천은 또 하류에 산지(건입포구)를 거느리고 있어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관문 구실을 해왔다.

산지천은 주변 경관도 빼어났다. 동쪽의 가파른 언덕에는 노송이 울창하게 자생했고, 가파른 절벽에 서면 읍성 전체와 넓은 대양이 한 눈에 들어 왔다. 그래서 산지천 주변에는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들어섰다. 산지천의 하구는 '산포조어(山浦釣魚)'라 하여 낚시를 즐기는 것 자체가 영주십경의 하나가 될 정도로 유명했다.

그러나 산지천변의 숱한 유적들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자취를 찾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건축공학적으로도 빼어난 남수구와 북수구는 홍수로 무너지자 복원을 하지 않은 채

버려졌고, 포구는 매립해 버렸다. 포구를 매립하며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성과도 허물어버렸다.

최근 들어 제주사회는 학계·문화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권 복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개발의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멸실된 역사문화유적을 되살리

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지가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산지전변의 사라진 몇몇 주요 유적을 되살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